

제1회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2007년 UN은 10월 15일을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Rural Women)'로 제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힘으로'

국제 포럼

2020. 10. 15.(목) 14:00~16:30

[초청강연] 유튜브 (14:00~15:00)

[대담] 줌(ZOOM) (15:20~16:30)



■ 여성농어업인 단체 대표_ 대담 자료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미래,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 부 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회장)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우리 농촌과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성농업인 역할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농가주부모임 회원 모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믿음직한 일꾼이자, 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가정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이자 작게는 한 마을을, 더 나아가 그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회적 책임 또한 다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고령화된 농촌과 생기를 잃어가는 우리 농업의 활력을 되찾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는 46,317명의 회원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이야기하려 한다.

그 첫 번째는, 생태환경지킴이로서의 여성농업인이다.

텅 비다시피 했던 우리나라 농촌을, 오로지 여성농업인이라는 사명감으로 지켜온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농업 기술의 진일보로 사계절 농사짓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닐 뿐만 아니라 농약을 활용하는 것이 이미 일상화된 지 오래다. 그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영농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결국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 환경을 오염시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우리 농가주부모임의 '영농폐기물 ZERO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그에 더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한다. 더불어 자연의 재생성을 훼손하지 않는 농법으로 환경도

되살리기 위해서도 애쓴다. 농업인만의 공간이 아닌 농촌과,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올해는 '포장재 UP&DOWN' 캠페인도 시작했다.

둘째, 지역사회공헌자로서의 여성농업인이다.

우리 농가주부모임은 '희망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드림봉사단은 전국 15개 시도, 146개 시군, 863개 읍면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 시도, 시군별로 의료진 및 자가 격리 대상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더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소외계층을 위해 수제 마스크를 만들어 배부하고, 공동소득사업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수제도시락은 물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며, 체내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극대화시켰다.

매년 반복되는 예외 없는 강력한 태풍에 대비하여 농작업 마무리 일손 돕기에 나서고, 태풍 이후에도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은 물론 청소 세탁 봉사 뿐만 아니라 수재민 대피소 배식에도 적극 참여했다.

농촌 지역 고령화로 증가 추세인 홀몸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농가주부모임의 찬饌贊' 밑반찬 나눔 사업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기에 생활 실태까지 점검할 수 있으므로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생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홍보대사로서의 여성농업인이다.

정책으로부터 소외받는 여성농업인들이 없도록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개최하며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문화 여성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친정엄마를 자처하며 농협과 함께 농업 교육에 참여하고, 귀농인들에게는 멘토가 되어 농사 노하우를 공유한다. 많이 알아야 더 나눌 수 있음을 알기에 여성농업인 정책 골든벨을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능력있는 여성농업인이 되어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등 우리의 삶을 소비자와 함께 공유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는다. 농산물을 나누는 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일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 땅을 지키며 먹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하며,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까지 더했으니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은 그리 먼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성농업인의 이러한 힘을 원천으로 삼아 농업이 희망인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농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국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등을 모색

김 옥 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1. 지금, 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주권의 중요성 대두

2. 전여농 식량주권 지키기 운동의 의의와 경험 공유

- 전여농은 2003년, 국제 소농 조직 비아 캠페시나(스페인어로 농민의 길이라는 뜻)와 인연을 맺고, 전 세계 소농들을 직접 만나 세계 농업 현황과 농민의 현실이 같음을 느끼고 함께 연대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1)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

- 2007년 비아캠페시나와 전여농이 함께 국제종자포럼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토종씨앗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 전국의 여성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토종씨앗 실태조사, 1명의 여성농민이 1개 이상의 토종씨앗을 지키기, 토종씨앗 보존과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운동, 토종씨앗을 늘려가기 위한 토종 증식 채종포, 소비자도 함께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만원의 행복, 토종씨앗 축제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이를 통해 토종씨앗을 지켜왔던 여성농민의 역할이 소중하고,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서도 토종씨앗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로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2)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언니네텃밭

- 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성농민 생산자 공동체를 만들어 여성농민이 생산의 주체로 활동한다.
- 언니네텃밭 제철꾸러미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지원하고 생산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보내줌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 언니네텃밭 생산자들은 토종씨앗을 지키고, 제철 먹거리, 생태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교육과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3) 농생태운동

- 기후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농업에 있고, 농민에게 있다는 것을 함께 배우며 농생태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 인도네시아와 태국으로 농생태연수를 진행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에 더하여 다른 나라 농민들의 농생태운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농생태운동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것인지, 농업 생산방식을 농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농민들의 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지구를 지키면서 자연과 공생하는 농사생산방식은 삶의 방식, 가치관을 바꾸는 것과도 연결된다.

3. 향후 과제

- 토종씨앗 지키기운동과 농생태운동, 공동체 조직화의 확산 : 여성농민의 활동을 넘어 전국의 모든 농민들에게 우리의 실천을 알리고, 실천하면서 얻게 되는 교훈과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할 때 우리 농업도 지킬 수 있고, 식량주권 실현도 가능하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식량주권 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토 론 요 지

김 인 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재난으로 인해 전 인류가 혼란과 두려움에 처해있는 이 사태를 보며 매우 마음이 무거워 집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종식은 그리 빠른 시간내에 우리를 안도시켜 주기는 어려울 것이며 더 강력한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들으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이런 사태를 물려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극복해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일 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은 무엇보다 지금의 환경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반다나 시바 박사의 강연에서도 농어촌 여성들이 수 천년 동안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힘써 온 것처럼 앞으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구를 중심에 둔 사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에 기반한 여성중심적 세계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어 가기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고민하고 가족과 주변인들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농촌사회를 변화시키는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일이 밑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정에서부터 가족원간에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농사일과 집안 일을 함께 해나가려 노력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하여 경쟁과 이기심으로 가득찬 사회 문화가 공동체를 중심에 둘 수 있는 문화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크게는 이런 노력이 여성농업인 전체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할 때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세계 여성농업인들이 함께 서로 연대하고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될 수 있고, 후계세대에 당당히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생활개선회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가족경영협약을 전회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다른 단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 저개발국인 캄보디아와 케냐 여성농업인을 위해 2018년부터 해오고 있는 교류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주거환경개선 지원과 소득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립되어 어려움에 처해있는 미얀마 난민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여성용품 2,000장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여성농업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문화의식 확산과 국내 여성농업인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 나아가 저개발국 여성농업인과의 교류와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생활개선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나의 삶의 질 개선을 시작으로 지역과 여성농업인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전세계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또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한국여성어업인의 역할

안 창 희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사무총장)

반다나 시바 박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농어촌 여성'들의 이야기는 우리 농어촌 여성들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 매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여성들은 '지구와 사회를 위한 돌봄의 경제를 실천하기에 지속가능한 과학의 전문가'라는 주장은 농어촌 여성들의 역할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며, 수확량이 아니라 '수확 후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먹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70년 15만 가구에 육박했던 우리나라의 어업 가구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5만 가구까지 감소했습니다. 어촌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현재의 추세라면 어가인구수는 5년 이내에 1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소하고 있는 어가 인구마저도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업인구의 고령화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업인구의 고령화율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20%를 넘어섰습니다.

수산물 총 생산량은 2006년 이후 300만톤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만, 어선어업과 원양어업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어선어업 생산량은 93만톤으로 90년대 대비해서 36.8%감소한 양이며, 원양어업 생산량 역시 45만톤으로 90년대비 50%이상 감소한 양입니다. 한국인의 한 사람의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60kg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어업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는 대한민국 국민의 중요한 식량장원이 고갈되는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촌여성들은 시바 박사가 이야기하는 지구와 사회를 위한 돌봄의 경제를 실천하는 전문가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어촌사회에서 여성의 어업 활동 기여는 어촌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어업인의 중요한 역할에 비해, 여성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속가능한 어촌을 위해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위향상 프로그램, 어업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개발이 필요합니다. 어업별로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상이하고, 개별 어업마다 또는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화된 교육 내용 보다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여건의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수산기자재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더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 편향적으로 제작되어 있는 기존의 수산기자재를 여성어업인의 노동강도를 경감시키고 안전한 작업관리를 위해 여성친화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한가지 더 여성어업인의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합니다. 현재 여성어업인 정책을 총괄 관리할 조직이 부족하며, 정부의 유관기관과 업무체계가 불명화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어촌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국의 여성어업인들은 미래를 지키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여성농업인의 역할

이 명 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세계 초유적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 발생은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는 경쟁력 중심의 농업을 지향해왔고,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에 현재부터 미래는 다원적 농업의 전환, 생태환경 보존 중심의 농업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미래와 농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농촌을 터전으로 삼고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는 여성농업인의 필요성과 개선에 대해 1994년 농업정책에서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다.

삶의 질 향상, 직업적 지위 변화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많은 부분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남성중심의 농업경영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고, 여성농업 노동력 인정 부분이 미미하지만 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경영 참여 부분에 대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그 여건은 충분치는 않다.

하지만 다원적 역할을 수행했던 여성농업인은 그간 가계를 담당하면서 그 능력이 농업경영까지 이어졌고,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남성과 다른 이점이 있었다. 이는 농업의 경쟁력을 생산매출 및 수익으로 증명해 냈으며, 여러 변화에 따른 생산 품목 전환을 시도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한여농은 이런 부분을 부각 시켜 교육으로 연계하였고, 농업회계 교육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증명해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유지, 가족농의 활성화, 여성후계인력육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 한다면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인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곧 농업 경영주가 되는 것이고, 그 경영주는 농업농촌을 유지 및 발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여성농업인들은 농가경영체등록 및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조자의 역할에서 생산 및 농업경영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을 양성해야 하며 우리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

다방면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와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진다. 선제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해 농촌에서 개선되어야 할 인식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은 그것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농촌을 지키며 농업을 업으로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할

이 소 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대표)

올해의 경우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라는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세계가 긴장을 유지하며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농업 농촌의 경우에도 의료적인 복지로부터 불편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령농업인들의 건강 문제, 농촌에서 현재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문제, 예측하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비와 태풍 피해 등으로 농업 농촌에서 올해의 키워드는 더욱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본래 위기를 기회로 삼음에 대한 대처가 빠르며 예로부터 농민들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항상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조상들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여성농업인들에게도 올해는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여성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들과 아직 농업에 대한 기술 및 경험이 현재 농업선배님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러한 기상상황에 대하여 더욱 준비하여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가 갔을 때의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과 미안함이 더욱 컸으며 하지만 농업 농촌의 비전과 미래 그 이상의 가치를 보고 농촌에 들어 온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은 수이지만 백령도, 강원도 평창에서 최남단인 전라도 진도까지 전국의 약 80여명의 회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우리는 농업 농촌에 있어서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출산이 가능 하고 인구의 수를 증가 시킬수 있는 여성으로서가 아닌 현재 지방 소멸지역이 많은 농업 농촌 지역에서 청년으로서, 그리고 청년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 농촌에 수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농업인으로서 농촌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와 함께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하여 나와 같은 도시의 청년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여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며 배우는 삶의 지혜를 통해 농촌을 더욱 발전하고 농업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에는 저희와 같은 청년여성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는 역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우리는 농업경영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어느 배우자의 아내, 어느 부모님의 딸로서의 역할이 아닌 농업 경영인으로서 그리고 전문적인 농업 경영자로서의 재배 및 기술에 대하여 교육 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변화된 농촌으로서 적응하기 위해 많은 선배 농업인, 전문가집단, 농촌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들과의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직장과 같이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형태가 아닌 1년의 땀과 결실을 대부분 수확하는 시기에 얻는 만큼 저희 청년여성농업인들은 이에 대한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해야 정착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청년여성농업인 꾸러미 사업, 한달에 한번씩 소비자들을 만나 농산물에 대한 피드백과 생산자들이 어떻게 농산물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저희의 작은 힘으로 봉사활동 등을 하며 농업 농촌에 정착해 있는 청년여성농업인, 청년여성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3)미래의 농업발전을 위한 후계양성은 우리가 직접 하자입니다.

처음 저희가 농촌에 들어 와 농업을 한다고 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고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많은 선배 농업인분들과 함께 배우고 익히고 어쩔땐 살을 부대끼며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유치원에서 농부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보자고 하니 나이가 많이 드신 매우 힘들어 보이는 남자어른 분들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예쁜 긴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트랙터에 타 있거나 밭을 일구고 있거나 프리마켓에 있는 그림들을 그리곤 합니다.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뜻인데요, 저희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원들은 앞으로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개선 하도록 하며 많은 후계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강의, 특강, 현장실습 등을 통해 그들에게 저희가 배우고 경험 하고 있는 것들을 전달하고 있으며 한국 생명과학고등학교, 대구 마이스터고, 충남대 영농정착단, 김천 생명과학고 등학교 등과 같은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와 MOU를 체결하며 이들에게 조금 일찍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과정 없이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농산물을 통하여 소통의 창 만들기, 토종 종자 지키기, 농업인들의 취미 생활을 독려하며 워라벨과 율로를 농촌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농업 농촌이 정말 살고 싶고 살수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해야 할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할 자질 등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 해 주시고 농업 농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희 청년여성농업인들을 언제나 응원해 주세요!